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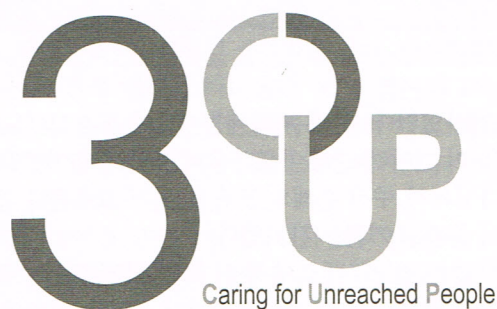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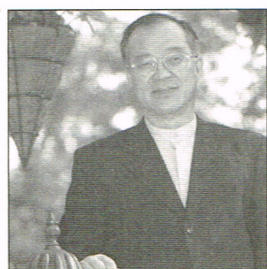
30 CUP, 교회의 건강한 허리세대형성을 위해

4월 17일 오후 중예배실에서 첫 30대사역 예배드려



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30대 사역은 준비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30대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토요일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하거나 1일 3교대를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주일성수를 하지 못한다고 정죄할 수 없다.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갓난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젊은 어머니에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땅의 30대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 생활을 필요로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고 싶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특권처럼 느껴지는 30대들이 있다. (3면에서 계속)

일 이틀간 저녁 시간을 통해 교민연합집회를 창 12:1-3과 벤전 2:9-12절을 통해 말씀을 전했고, 4월 3일 주일에는 입당 기념 예배때 1,2부 설교를 담당하고 돌아왔다. 오uckland 주님의교회는 우리교회 부목사였던 김화수 목사가 섬기고 있으며, 1994년 창립하였고, 우리교회에서 1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여 우리교회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 오uckland 주님의교회는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도 비슷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해 힘쓰는 교회이다.



지난 4개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온 30대 사역이 시작된다. 교회에는 1000여명의 등록된 30대 가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 그 중 다수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결혼, 직장, 육아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삶의 치열

오uckland 주님의교회 입당 예배와 교민 연합 집회 참석하고 돌아와

뉴질랜드의 오uckland 주님의교회가 기존 건물을 구입한 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 후 입당하게 되어, 담임목사와 이인호목사, 양동훈장로, 이영자장로, 김정신장로 등이 당회대표로 참석하여 담임목사는 4월 2일-3



복지선교부 나눔의물품 전달 잘 마쳐



지난 3월 3번째 주일에 걸친 나눔의물품은 어른 의류 10박스, 아동 의류 5박스, 장난감 3박스 200여권의 책 종류 외에 2세트의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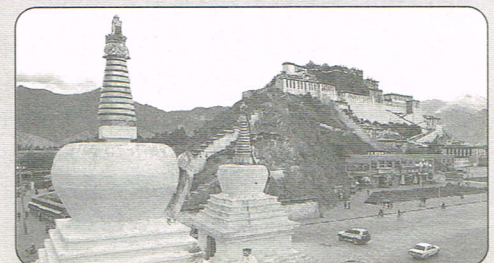
교재, 자전거 등이 모아졌다. 3월 24일 주님의교회 여전도회에서는 매일 봉사하는 마천동 소망의 집과 거여동 무지개 재활원에 직접 전달하였다. 3월 31일에는 극빈 결손 아동 20여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충남 금산 공부방에 자전거와 도서류 등을 전달하고 4월 1일 1급 장애인 30여명이 모여 사는 공향동 살림의 집과 150여명의 노숙자 및 부랑인들이 모여 사는 시흥동 베다니 마을에 직접 전달하여 이번 물품의 배달을 마쳤다.

가는 곳마다 각별한 감사의 뜻을 주님의교회 교우들에게 전해 달라는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새금산 공부방에는 물품을 갖고 도착하자 아동들이 손뼉 치며 반기기도 했다. 4월 17일에 접수하는 나눔의물품은 해외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오병이어 선교단 등에서 물품지원 (주로 의류)을 요청해 놓고 있어 교우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오영석 선교사 긴급 중보기도 부탁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오영석 선교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현지어와 함께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지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들이 아직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는 혈관종양을 치료한 탓에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한 힘겨운 상태에 있다. 오영석 선교사의 언어의 진보와 자녀들의 빠른 적응 그리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 절실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여 성도들에게 긴급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방과후학교 점차 정착되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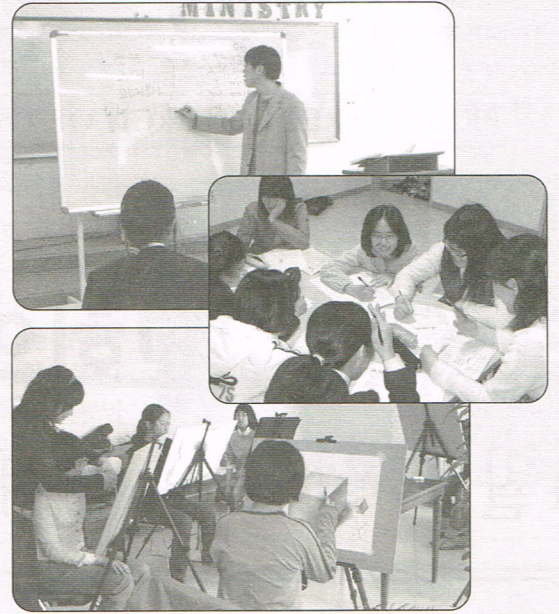


가 학생수의 거품이 빠지면서 점차 정착이 되고 있다. 영어(문법, 독해, 듣기), 수학, 논술, 물리, 화학, 프랑스어, 미술 등의 과목 수업이 각 수련실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시간표와 방 배치에 비해 많은 인원의 학생수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현재는 학생수의 변동이 점차 감소되면서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주님의교회 수련실에서 열리는 방과후학교

과목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듣고 있으며 호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무료교육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이 거의 100%의 출석률을 보이고,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주 1회의 수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했다. 방과후학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달란트를 일깨워주는 교육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질이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주위 학원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같이 상생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조직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는 영어, 중국어, 피아노, 플루트, 워십 댄스의 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을 더 모집할 예정 중에 있다. 방과후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한다.



목요모임

특별목요모임 두 번째 시간 / IVF 학사회 이춘태 목사 미래를 당신이 설계하십니까?

30대 크리스찬 직장인과 주부들을 초청하는 특별목요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IVF 학사회 이춘태 목사가 특별목요모임에 두 번째 강사로 초청, 말씀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래설계는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설계는 대부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게 된다. 야고보서 4장은 정욕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경고한다. 이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는 삶이고 자기 인생을 욕망대로 계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계획성 있는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은 죄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것은 내버려두셨지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늘 완벽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하는 참나적인 인생이다. 주님 없이 계획하는 것은 헛되다.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

저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 있을 때 포기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빨리 계획을 짜기도 한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을 내 틀에 맞추려하거나 절제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인도해 주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다. 상식이 자신의 삶이면 불신자가 아닌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은 미래의 진정한 투자 가치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과 미래는 달라진다. 마음을 열어서 주의 영이 역눌린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신다. 찬양과 기도로 일으켜 세우신다.

15사단 신병 세례식

3월 19일 오전 09:00 교회를 출발하여 전방 화전을 향해 달려갔다. 이곳은 봄기운속에 겨울의 모습이 많

이 남아있었다. 산과 계곡에는 3월의 봄소식에도 하얀 눈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스며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습을 여러 교우들과 함께 하니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다.

15사단은 전방부대로서 우리 교회 박진수 안수집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군선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있다.

오늘은 신병 335명을 대상으로 세례식이 있어 이곳을 방문하였다. 15사단 군종참모인 서광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인호 목사의 예수님으로 프로그래밍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가 있었다.

사람의 습관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반복된다. 이것이 인격이 되고 앞날을 결정하게 된다.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삶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결정되고 앞으로 일생이 결정된다.

이 일생의 프로그램에서 자포자기, 패배의식을 삭제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그램으로 채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된다. 두려워 말고 믿고 의지하면 성숙한 관계로 발전된다. 할렐루야 찬양단과 워십팀의 찬양과 율동으로 참석한 신병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다.

PTP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에서는 흥민기 목사가 인도하는 PTP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4월 3일은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 세번째 시간이었다. PTP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하나님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부모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소망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간절하여 힘이 있었다. 창13:14 ~ 18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놀라운 사상이 열리고 하나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세계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며

키우고 있음을 고백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방향했던 부분과 약한 부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고하니 위로가 되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방법은 기도이고,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진다고 용기를 주었다. 학부모들은 아멘으로 답하고 회개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 로비에 마련된 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었다. PTP예배 후에 학교앞 전도를 계획하고 있고, 예배중에는 전도사들을 통한 탁아교육이 준비되어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PTP 기도회의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소망한다.



오늘 기도



주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인생물
살게 하시옵소서.

2005. 4. 10

(1면에 이어서)

30 CUP, 교회의 건강한 허리세대형성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30대 사역이 지향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CUP(Caring for Unreached People 손닿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이라는 사역이름이 지향하듯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30대 사역의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CUP WORSHIP SERVICE 이다. 매월 셋째 주 주일 5시 30분 중예배실에 모여 함께 찬양예배를 드린

다. 30CUP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초대해서 30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4월 17일에 가지게 되는 첫 모임에는 강지원 변호사가(사진참조) 30대에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도전할 것이다.

둘째 소그룹 기도모임이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 김현령 전도사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기도모임이다. 산적인 삶의 과제들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 모임이다. 현재 주님의교회에는 이미 여성 30대 구역들이 모임이 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바램 중에 하나는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준비 되는데로 교회가 아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친교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6일 열렸던 '리브가의 신흥일기'와 같은 각종 모임이다. 어떤 정형화 된 틀에 의해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30대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모임을 구상할 계획이다. 30대 사역은 30대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닿아 있지 못한 사람들이 (Unreached People)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Caring for) 사역이다.

이 사역이 주님의교회에 뿌리 내림으로 주님의교회의 건강한 허리세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남이섬 봄나들이

지난 4월 5일 식목일 공휴일을 맞아 청년부에서는 남이섬으로 엠티를 다녀왔다. 매년 봄마다 1박2일 엠티로 친목을 도모했던 것과는 달리 아침 일찍 교회에서 출발하여 당일 돌아오는 계획으로 일일 나들이를 갔다.

특히 이번 모임에 눈에 띄는 점은 '청년부내 시간 지키기 문화' 실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다. 기존 청년부내 은연중에 습관처럼 30-40분씩 늦게 오는 일이 마치 으레 그런 것처럼 인식되어온 시간 안 지키는 습관을 이번 기회부터 확실히 고쳐 보고자, 새벽기도를 드린 후 무조건 아침 7시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몇 주 전부터 홍보하였다. 실제 당일 아침 7시 전에 엠티에 참여하였던 70여명의 청년부 멤버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목회

사역팀과 행정 사역팀의 기대 반 우려 반의 기다림은 기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시간 지키기는 사람간의 신뢰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주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일찍 출발한 결과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길 막힘없이 아침 9시쯤 도착할 수 있었고, 버스 하차 후 바로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갔다. 아직 계절이 일러서 푸른 잔디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 서서히 파릇한 이파리가 나오려고 나무에는 가지마다 파란 물이 올라 있었다. 우리는 한군데에 자리를 잡고서 과자 전달게임, 수건돌리기, 닭싸움 등으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2인 양푼비빔밥으로 밥도 같이 먹고 함께 1, 2인용 자전거를 타기도 했으며 모 드라마의 배우들처럼 사진도 예쁘게 찍었다.

청년들은 바쁜 일상생활에 쫓겨다다 모처럼 야외에서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기뻐고, 더

군다나 최근 새가족들의 수가 증가하고 바쁜 개인의 삶 등으로 인해 서로간에 친목을 다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참 감사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청년부 지체들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썩트네 교사들 진지한 나눔의 시간 가져

4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주일 새벽 2시까지 유치부실에서 썩트네 교사들과 전도사는 기존 교사와 새로 사역하는 교사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MT를 가졌다. 부장집사가 준비한 맛있는 주물럭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행사를 시작하였다. 식사 준비를 하며 전도사가 준비한 보드게임으로 설거지 당번을 정했다. 서로 승부욕을 드러내며 열심히 한 게임이었지만 게임에 져서 당번이 된 사람에게

몸이 안 좋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당번이 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에 서로를 위한 모습이 보기 좋다. 전도사가 준비한 서로에 대한 이미지 말해주기 시간은 준비한 사람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다. 서로의 모습에 대한 좋은 점,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점 등을 얘기하며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에는 그간 몰랐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가족, 건강, 과거 등 개인생활 얘기, 회사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향후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등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썩트네 교사회가 2차 집단에서 1차 집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3일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말씀으로 MT의 대미가 장식되었다. MT때 나왔던 문제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을 주시는가' 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아실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흥민기 목사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교사들에게 주어 MT를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무리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41:10)

어와나

장신대와 한빛교회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해

4월 2일 토요일 어와나 모임은 한주를 쉬고 나서 보름 만에 만남이라 더욱 반갑다. 게임시간 40분, 핸드북

시간 40분, 교제 및 시상 40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원들은 즐겁고 신나는 모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암송 할 때면 안타까운 모습은 암송 구절이 잘 떠오르지 않는 모습들이다. 본인 스스로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애를 쓰는 모습에 웃을 수도 없다. 옆의 친구는 2-3구절 정도를 외워서 담당 선생님 짜인을 받아 기뻐하는데 정작 본인은 한 구절도 잘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린 단원들을

굳세게 세워 나간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미래의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늘 클럽 미팅 때에는 장신대와 한빛 교회에서 견학 방문을 하였다. 장신대에서는 클럽 미팅이 파한 후에 윤현숙 교사와 나혜수 단원을 취재하였으며 한빛교회는 궁금한 사항을 서로 나누었다. 어와나 클럽은 매주 마지막 주에 쉬던 것을 변경, 4번째 주에 쉬게 된다. 그 달에 다섯 번째 토요일이 있으면, 어와나 클럽은 4번째 주에 쉰다.

유년부 달란트학교 시작돼

유년부에서 4월 마지막 주부터 달란트 학교가 시작된다. 어린이와 교사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복음의 빛 안에서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 매 월 마지막 주일, 11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달란트 학교가 운영될 것이다.

개설 예정인 수업은 요리반, 풍선아트반, 연극반, 예쁜글씨 쓰기반, 영어성경반, 수화찬양반, 종이접기반, 게임반 등이다. 각 수업은 다양하고 흥미진진하게 짜여져 아이들의 문화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르게 성장케 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지원서 접수는 4월 셋째 주부터이고, 유년부실 입구의 신청판에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각 반 인원은 10~12명이 될 것이다.



청년부 사역팀 소식

청년부의 사역팀들 가운데 찬양사역팀과 소그룹사역팀원들이 이상호 담임 전도사와 심명보 담임 간사와 함께 4월 4일 저녁에 MT를 가졌다.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의와 뜨거운 찬양과 기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으로 청년부 찬양사역의 새로운 기대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렸다. MT를 마친 찬양사역팀의 싸이월드 클럽에는 기대와 서로를 향한 격려로 넘쳐나고 있었다. 청년부 담당목사인 윤은성 목사는 예배와 찬양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 삶이며, 모든 사역의 뿌

리가 되는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청년예배의 찬양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그룹 리더들로 구성된 소그룹 사역팀도 연초 리더 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힘겹게 출발하였지만 소그룹과 사역팀의 양 날개로 비상하는 청년부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생활과 학교 생활로 바쁜 리더들의 양육을 위하여 리더 모임을 매주 두 차례에 나누어 편한 시간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현재 리더 모임에 참여하는 예배리더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4월 4일의 MT를 통하여 소그룹 리더로서 섬기는 가운데 갖게 되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인도하는

노하우를 나누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자기 개인의 삶을 돌보기에 급급한 현대의 시대적 흐름과 달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안에서 사역팀과 소그룹을 통하여 1인 1사역 운동과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자하는 청년들의 영적 몸부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문서 사역팀도 지난 금요일 4월 8일 담당 간사인 한창호 간사와 함께 모임을 가지고 새로이 디자인된 청년부의 주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문서 사역팀으로 올 한해 청년부 사역팀들의 기본 사명인 사역팀 매뉴얼 작성을 위하여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샘플이 될 수 있을만한 문서 사역팀의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군대에 가 있는 지체들과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주보 발송과 청년부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역도 감당하기로 하였다. 문서 사역을 통한 시대정신을 이끄는 사역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동역과 지원을 기대한다.



중보기도사역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5기 중보기도사역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14일, 오후 7시-9시 30분)과 토요일(16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5층 찬양연습실에서 열린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정영환 목사가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의 주제로 강의하고, 함께 실제로 기도하는 실습을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수료하는 분들 중에서 원하는 분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신 영광스러운 사역, 중보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한다. 오늘 1층 로비에서 등록하고, 목요일 오후 7시에 5층 찬양연습실로 오면 된다.

(문의: 정영환 목사, 011-9618-3124)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2005년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5주간의 토요일에 동부 제15기 <아버지학교>가 중앙침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토요일 5시에 120여명의 아버지들이 모여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개최되었다. 아버지의 순결, 남성, 영성 등의 주제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야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고 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목적으로 <아버지학교>는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시작되어 9년여 동안 총 734여회가 개설되어 5만 1천여명의 아버지들이 수료했다.

가정 사역팀을 중심으로 우리교회에서는 여덟 명의 아버지들(김인성 김주옥 김중호 나병진 박중순 정원락 정희성 하장용)이 참석하여 편지쓰기, 칭찬하기, 간증, 교제 등을 통하여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이 사회의 아버지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정과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정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아버지가 될 때야 비로소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진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아버지학교>는 강력한 성령운동이고 삶의 실천운동이며 평신도 운동으로 2005년도에는 '아버지의 순결'을 강조하는 한 해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순결이 가정의 순결이며 가정의 순결이 교회의 순결, 사회의 순결로 연결 되어진다. 아버지들의 순결은 성문화로부터,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순결해야 되고 아버지가 순결할 때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해, 조화와 연합, 변화와 성숙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의 교회 가정사역팀은 올 가

에 우리교회에서도 교인들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안에서 다스려지는 참 가정의 회복과 섬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아버지들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4월 23일 천호동성결교회에서 실시되는 아버지학교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는 박중순집사(011-253-2621)에게 연락하면 된다.

치매노인을 위한 개별상담 기획 열려

복지선교부에서는 4월 13일 오후 2시부터 봉천동에 있는 주로 치매노인 수용시설인 동명 노인 복지센터에서 이인호 목사, 마리아 성가단과 함께 수요일 예배를 봉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가족으로 치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교우들은, 예배 후 센터의 원장인 김병한, 지영민 집사 부부와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교우는 당일 오후 1시까지 교회 카페로 나오면 승합차로 센터까지 왕복할 수 있게 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4월 17일 주일 오후 1시 지하 대화의 방에서

결혼예식팀 모임 가질 예정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일 토요일마다 두 번의 결혼식(오후 2:30과 5:30)이 지하 중예배실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결혼 예식 사역을 책임지고 맡아 사역하고 봉사할 팀으로서 결혼예식팀은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열린 사역 박람회를 통해 몇 명의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었다. 결혼예식팀이 담당할 사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당일 예식 준비부(5-6명): 무대 셋팅 확인과 신랑 신부 및 혼주를 전체적으로 돕는다. 피로연과 폐백 상황을 혼주, 교회 사무실과 조율하고,

주차 안내를 포함한 결혼 예식 전반을 확인 점검한다.

* 예식 진행 안내부(2명): 예식이 예배 형식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석 착석 안내와 경건한 결혼 예배 분위기 조성 역할을 담당한다.

* 음향부(1명): 교회 음향 기사를 도와 마이크와 무대 셋팅을 돕는다.

* 영상부(2명): 결혼 예식 때 이루어지는 영상을 30분전 미리 시연해 보고 결혼 예식 때 영상을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돕는다.

* 조명부(1명): 음향, 영상부와 함께 조명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 음악부(1명): 결혼 예식때 축하 및 반주를 맡아 준다.

지금까지 결혼예식팀에 지원한 성도는 모두 13명이다. 인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더 기다리며 늦출 수 없기에 4월 17일 주일 오후 1시에 지하 대화의 방에서 결혼예식팀 모임을 갖고자 한다. 이미 지원한 성도들과 또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문의: 박의일 전도사).

결혼 예식팀 팀원 명단

담당 교역자: 박의일 전도사

팀장: 한영미 권사

팀원: 1조-윤숙 집사, 신명희 집사, 이봉순 집사
2조-김홍숙 집사, 이영자 집사, 하승낙 집사
3조-이은영 집사, 장광희 집사, 현옥희 집사
4조-설희정 집사, 오순옥 집사, 양시길 집사